

하나됨과 나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지난 주간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교회밖 현장실천'이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정기제직회가 다음 주일(30일) 오후에 있습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8일(금) 오후 8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범준 생일)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감사)
 최상득 · 백성복 집사 가정 (백성복, 최지수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인 교회 송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신세계백화점 1층 영풍문고앞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방교회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원로목사/ 정태일 담임목사/ 최성필
 부 목 사/ 이원영 권혁신 이동기 협동목사/ 박광희
 장 로/ 홍삼성 김영식 홍정길 안상호 은퇴장로/ 이용신
 전 도 사/ 해 은 권재만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이어진
 선 교 사/ 조남희 김하진 노효중 김희정 윤연섭 이양숙 최정수 허윤정 임채정 손희정

제 36 - 25호

2019년 6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구원의 손길

며칠 전에 해양 재난 영화인 'All is lost'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이 지긋한 한 노년의 남성(로버트 레드퍼드 분)이 혼자서 개인 요트를 타고 인도양을 항해를 하던 중,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대사가 거의 없고 다른 인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1인 출연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의 행동과 표정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트 안에서 조용히 잠을 자던 주인공이, 바닷물이 점차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서, 급히 일어나 바깥 갑판에 나가 확인해 보니, 정말 황당하고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던 컨테이너박스가 요트의 좌현에 부딪혀서 뱃머리에 박혀버렸고, 그 구멍으로 물이 점차 차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요트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발로 힘껏 밀어도 보고, 지렛대를 만들어 밀치는 등 안간힘을 다 써보아도 컨테이너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노신사는 요트용 닻을 컨테이너 박스의 모서리 구멍에 단단히 묶어서 배의 진행과 반대쪽 해류를 이용해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좌현 뱃머리에 머리 크기만하게 난 구멍은 경화 접착제와 응급 키트를 이용하여 임시로 조치를 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능숙하게 매듭과 노끈을 다루며, 꼼꼼하게 기록한 항해일지와 바람과 하늘로 날씨를 예측하는 모습이 노신사의 그간의 항해 경험을 가능케 합니다. 안전한 항해를 하는가 했더니, 멀리 비구름이 몰려와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내맡기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손상이 된 요트의 구멍쪽이 헐거워지면서, 배 안에 물이 점차 차오르고, 태풍이 그칠 즈음에는 가까스로 구멍보트에 식수와 항해일지, 지도, 나침반 등 생존에 필요한 몇몇 물건들만 겨우 건지고, 요트는 인도양 수면 아래로 사라져 버립니다. 요트 안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가지 비상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은 시간을 표류를 하면서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큰 컨테이너선을 만나기도 하지만, 배가 너무

커서인지, 신호탄을 발사하여도 발견하지 못하고, 큰 여객선도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보트를 그냥 지나칩니다. 수 일 혹은 수 주가 지나 모든 것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밤바다 위 희미한 불빛을 보고 자신을 알릴 최후의 수단으로 항해일지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만 그 불이 구멍보트에 옮겨 붙어서 노신사는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고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려는 순간, 수면 위로 작은 보트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게 되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면을 향해 헤엄쳐서 보트 위의 사람이 내민 손을 잡으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대사가 없는 영화라서 주인공의 행동이 더욱 눈에 띄게 되는데, 잠을 자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노신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또한 옷을 자주 갈아입는데, 젖은 옷은 언제나 난간에 널어 말립니다. 통조림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모습,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모습, 항해일지를 기록하고 지도에 위치를 체크하는 등, 빈틈없이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모습에서 노신사의 지혜와 노련함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는 순간이 나오는데, 요트에서 빠져나올 때 챙겨온 식수통의 작은 마개가 열려 있어서, 식수와 바닷물이 섞여서 마실 수가 없을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에 스스로가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련함으로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했었고, 혼자서 해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필요한 실력을 갖추었지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로 모든 삶의 희망을 놓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거대한 컨테이너선도 아니요, 많은 사람이 탄 여객선도 아닌, 한 사람이 모는 작은 배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상업주의의 거대한 시스템도 아니요, 자신들끼리 뭉쳐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요, 그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한주간의 말씀

"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 시편 23편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에스겔서 47:13-23

제목 :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

인도 : 최성필 목사

기도 : 원혜덕 집사

찬송 : 388 407 543 484

1. 내용관찰(What)

47-48장(회복될 새 땅에 대한 약속)

<회복될 새 땅이 갖는 특징들>

- 1)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어진 땅<13.21>.
- 2)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이 주어지는 땅<13>.
- 3)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
- 4)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14>
- 5) 외국 사람들과 거류민들에게도 분배된 땅<22-23>.

2. 내용의 의미(Why)

전체 메시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땅은 삶의 터전을 의미하며, 땅의 회복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과 거류민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은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3. 의미의 적용(How)

적용) 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렘29:11>.

②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

-회복의 은혜를 누리신 신앙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삶의 기반이 약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자.

성서일기

오징어 다리가 되는 그날 까지...

우드득~ 뽀드득~ 이 소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뻗뻗한 내 몸에서 나는 소리랍니다.

이 소리에 문득 나는 앞으로 50년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남편과 함께 운동올(요가) 시작했지요.

가능한 만큼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서서히 놀러나가라는 요가 쌤의 말만 믿고 자신 있게 겁 없이 요가에 도전했습니다.

요가 할 때마다 뻗뻗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부부의 몸뻑이는 지옥적이다 못해 웬수 같답니다. 요가원에 다니면서 창피함과 좌절감으로 서로의 몸을 보고 웃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했지요. 집에 와서 연습과 복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 다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남편은 작은 꿈이 생겼다고 하네요.

요가를 열심히 해서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도 요가 취미 생활로 건강도 지키고 멋진 요가 쌤이 되어서 노년에 요가 봉사를 다니겠다는 아주 야무진 꿈과 엄청난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젊은이의 꿈을 짓밟기가 좀 그래서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와 썩소를 보냈습니다.

오징어 다리처럼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우리 부부는 나무토막 같은 다리로 매일 매일 요가원에서 한 바가지씩 땀을 쏟고 있습니다.

요가를 시작하면서 몸이 건강해진 것도 감사하고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 대화도 많아지고, 먼 훗날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거리가 생긴 것 같아 감사하기도 하고... 암튼 저에게 요가는 특별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 부부가 함께 손잡고 요가 봉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

봉날사랑방 하반기 공동체에 가서 오징어 다리는 못되도 쭈꾸미 다리라도 방 식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는 중입니다

봉날사랑방 김용미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35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시편 65 : 2-3

39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시편 23 : 1-6

397

“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 최성필목사

설교자
더기쁨사랑방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70

은혜로다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진평 조은경 / 봉헌위원 : 최신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참 목자이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 다윗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목자는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우리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렇다면,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만족하게 됩니다<1>.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 얻게 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4>.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살피 주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6>. 시인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확신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며,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성필 목사 / 기도: 오영옥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매 달 꾸러기에는 성경이야기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하는 데는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번 달은 구약 이야기 중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나무 교구로 선생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니다. 꾸러기들은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야기 후에는 선생님과 꾸러기들이 나무 교구를 만지며 성경 이야기를 되짚어 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달의 성경이야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매일 아침 모임 시간에 암송하고 음률시간에 노래를 배워 틈이 날 때 마다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이야기의 꽃 성경 활동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이야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말씀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꾸러기들이 직접 사람을 그리고 오려서 큰 검정 종이에 붙이고 종이 윗부분 하늘에는 물감을 뿌리고 붙고 그러서 별을 표현하고 종이 아랫부분에는 모래를 직접 풀로 붙였습니다. 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외우고 부르고 다양하게 활동까지 하니 꾸러기들의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길 기도합니다.

< 교사 : 박현주 >

어린이학교

보리수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오가다가, 쉬는 시간에, 체육시간에, 훌륭한 간식 꺼리이자 놀이꺼리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햇살이 잘 비치는 쪽의 나무는 벌써 잎할 남은듯 합니다. 일주일 내내 어린이에게 열매를 다 내어준 보리수, 그 보리수를 주신 주님이 정승희선생님과 흥인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온종일 생일 축하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물론이고 꽃화관과 꽃반지, 꽃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계시는 선생님과 흥인이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복주신 주님, 사람이 태어난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임을 알고 함께 마음 모아 축하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은 언제 보아도 감동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기도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운동하고, 놀고, 밥 먹고, 그림 그리고, 노래하는 어린이학교의 모든 일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다듬어 키운 나무처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품위 있는 사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어린이학교 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이번주는 실로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던 모든 멋쟁이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서로 갔던 곳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각자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학년별로 준비하여 다른 멋쟁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5학년과 3학년 발표회에는 장신대 신대원 손님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쑥스러워 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열심히 전달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특별한 호의에 의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1년만에 다시 경험했습니다. 풍성한 선물과 함께 눈과 귀가 호강하고,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스스로 한학기 동안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학기말 자율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성장을 체감하고서, 그것을 발판으로 더고서 더 도약할 수 있는 멋쟁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땅에 있는 하늘나라 사랑방공동체

다들 안녕하세요~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소개를 주보글로 빌어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저는 어린이 학교에서 교사를 맡고 있고 6월에 사랑방교회로 옮긴 김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방공동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작년 봄 사랑방학교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학교 교수님과 탐방을 왔는데 제겐 잊을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밥과 학교 아이들 이미지와 그때 둘러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학교 풋말을 보는데 '땅에 있는 하늘나라' 라는 말이 정말로 이곳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방공동체와의 만남은 실습이었습니다. 멋쟁이학교로 실습을 오게 된 저는 중·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고 정말 순수하게 실습을 온 선생님들을 맞이하여 주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같이 실습을 온 친구 한 명이 저를 보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 2년간 학교 같이 다니면서 너도 그렇게 웃을 수 있구나 하며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4박 5일간 지내며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너무나 행복해서 이곳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리고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ㅎㅎ

이후 2학기 대학 생활은 정말 사랑방에 대해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생각으로 휴학하고 가야지, 교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찌지? 하는 생각과 정말 좋는데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ㅎㅎ 그래서 속마음을 잠깐 꺼내자면... 교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수업도 찾아들고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교수님에 대해 무지해서 좋은 내용을 다 놓쳤는데 관심을 갖고 짚었지만 실습 때 학교 기억을 하며 들으니 수업 시간이 너무 짧고 수업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수님께 이것저것 여쭙보고, 가고 싶은 마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린이학교 교사로 불러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매일매일 웃고 고맙고 감동도 받는 시간입니다. 자꾸 웃어서 팔자주름이 늘어서 걱정이네요.. πππ 공동체 모든 분들! 즐겁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김선희 선생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시편 122편

인 도 : 공화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홍콩 평화로운 시위>

홍콩에서 지난 16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명이 거리 시위를 벌이면서 결국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돌입하였다.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18일(현지시간) 공식 사과했으며 범죄인 인도법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는 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강한 홍콩 10, 20세대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살롱공동체 >

- 신앙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3) 지역사회와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이번 주간에 오실 손님들과 여름공동체생활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주간에는 교회밖 현장 실천으로 열 분의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사랑방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머물다 갔는데, 지금까지 왔던 학생들과는 달리, 특별한 순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목요일에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성악 가수 여러분이 뮤지컬과 오페라 곡들을 노래했는데,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여서 더욱 풍성했습니다. 어린이, 멋쟁이학교와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참여하여,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무대를 맛보았습니다. 매년 교회 밖 현장실천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요일에는 지역사랑방 모임, 생활공동체 일정에 참여하여 공동체생활의 일부라도 경험해 봅니다. 숙소는 가정별로 둘씩 흠뻑 젖었는데, 이때에는 밤늦게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목요일에 생활공동체 생일 축하 시간과 디아코니아 방모임도 함께 참여하고 돌아갔습니다. 목회자 준비과정에 있는 분들이어서 손님맞이에 정성이 들어갑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정재훈 전도사 >